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 민 규

인쇄일 : 2013년 12월 30일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

Vol. 18, No. 4.

Decem. 2013.

---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

#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http://www.kci.go.kr)

---

#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 제 18 권 제 4 호

#### [개관논문]

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의 효과 개관 ..... Chad Ebesutani · 김 미 리 혜 / 589

#### [경험논문]

수용전념치료가 정서조절곤란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 허 예 슬 · 손 정 락 / 603

마음챙김과 수용 중심 프로그램이 몰두형 애착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 석 정 민 · 손 정 락 / 627

명상기반 개입법에서 정적명상과 동적명상의 차별적 효과 ..... 김 완 석 / 643

긍정 심리치료가 우울경향이 있는 청소년의 행복감, 낙관성, 무망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 유 은 영 · 손 정 락 / 669

직접적 · 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건강한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 주 정 현 · 정 경 미 / 687

한국형 성인용 게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 최 훈 석 · 용 정 순 · 김 교 현 / 709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 박 지 선 / 727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의 타당화 연구  
..... 심 미 영 · 엄 진 섭 · 이 선 희 · 김 교 현 / 747

남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 한 수 연 · 정 구 철 / 763

수면과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가?  
..... 심 태 경 · 이 민 규 / 783

대학생의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 윤 진 아 · 송 원 영 / 807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 김 정 희 · 안 귀 여 루 / 82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서 경 현 · 신 현 진 · 양 승 애 / 837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가 감사와 빗짐에 미치는 영향 ..... 김 미 현 · 현 명 호 / 853

**[Brief Report]**

아동 및 청소년 암환자와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혐오민감도와  
통증-공포 연합강도 간 상관 비교  
..... 민 해 원 · 고 영 건 · 유 은 승 · 박 병 규 · 박 현 진 · 김 중 혼 / 869

자아존중감과 마음챙김의 관계 ..... 박 상 규 / 881

섭식행동에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 ..... 이 민 규 / 891

#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sup>†</sup>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신 현 진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양 승 애  
성신여자대학교  
간호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533명(남: 273, 여: 260)의 고등학생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45( $SD=0.65$ )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냉소적 적대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수준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냉소적 적대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그런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한편, 고등학생의 냉소적 적대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냉소적 적대감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물론 사회불안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영향과 냉소적 적대감의 영향에 관해서는 Adler의 개인심리학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추후연구의 방향과 임상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부모양육태도, 냉소주의, 적대감,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회불안

<sup>†</sup> 이 논문은 2013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하였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이다. 만약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심하면 정신장애까지 이를 수 있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는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 정신장애 중에 가장 흔한 편이다. 평생유병율이 12%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Kessler et al, 2005). DSM-5에서는 이 장애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장애”로 범주화하였다.

사회불안장애로 진단을 받는 시기는 주로 청년기나 성인기이지만, 이 장애는 십대 중반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Degnan & Fox, 2007). 사회불안 증상은 청소년기부터 개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은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낮추고 교우관계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 사회불안장애를 적절하고 빠르게 중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서경현, 양승애, 2010; Kessler et al., 2005). 또한 사회불안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약물남용 혹은 그 외의 다른 심리적 문제에 취약하다(Stein & Stein, 2008). 서경현, 유제민과 안경미(2008)는 한국 부모의 경우 자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녀의 학업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개인의 사회적 적응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찾는 사람들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제기하지만 그 대부분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Powell, 1987). 실제로 정신질환 환자들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한다(Horowitz, Rosenberg, Baer, Ureno, & Villaseñor, 1988). 우울에 대한 대인관계 문제의 설명력이 일반적인 생활 스트레스의 설명력보다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박경, 2003). 심지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과도 관계가 있다(Lynch, 1979). 역으로 긍정적인 대인관계는 행복의 기본 요인이다. Joiner와 Metalsky(1995)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개인의 삶이 피폐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 요인일 수 있다.

Adler(1956)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타인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들어 유아기부터 본능적으로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역으로 말하면 유아기부터 사회적 불안이 학습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적절치 못한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하게 만들고 대인관계 스트레스

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서경현, 2012; 서경현 외, 2008; 허재홍, 2006; 허재홍, 조용래, 2005; Bruch, Heimberg, Berger, & Collins, 1989).

부모와 자녀가 사회불안 증상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불안장애의 유전적인 측면도 주목받고 있지만, 입양된 자녀와 입양한 부모의 사회불안 증상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어 사회불안 증상이 부모에서 자녀로 전달되는 것이 생물학적 차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Merikangas, Dierker, & Grillon, 1999).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불안 증상은 후천적으로 부모의 행동에 의해 생긴 것 일수도 있다. 신생아가 태어나 부모와 처음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사회성의 발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회불안이나 사회적 철회와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부모의 영향은 통제적인 부모양육 혹은 과잉간섭이다(문경주, 오경자, 2002; 서경현 외, 2008; Bruch et al., 1989).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역기능은 선행연구들(예: Bruch & Heimberg, 1994)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를 할 경우 자녀가 심리적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Zanarini, Weingeroff, & Frankenburg, 2009), 그런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의 역기능에 주목할 만하다. 부모가 자신을 배타적으로 대하여 거리감이 느껴질 경우 자녀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가능성이 큰데(Zanarini & Frankenburg, 1997), 지속적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은 자녀는 다른 대인관계에서도 불안을 경험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의 선행연구(Parker, 1979; Arrindell et al., 1989)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부적응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이 자녀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는 증거는 더 있다. 윤세화와 권연희(2009)의 연구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아동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게다가 최창석과 조한익(2011)은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청소년기에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을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수치심이 사회적 불안이나 철회에 선행되는 심리적 경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 받은 자녀의 경우 감정조절을 못한다는 결과를 얻는 연구(정윤성, 2007)와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백지은, 2009)도 거부적으로 양육 받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적응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가 경험하는 사회불안 혹은 사회 적응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오경자, 양운란, 2003). 물론 거부적 양육 자체를 변인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이 있음을 암시한다(오경자, 양운란, 2003).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냉소적 적대감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았다.

냉소적 적대감은 분노와 함께 건강심리학에서 주목받아온 변인으로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믿을만하지 않다는 생각과 관계가 있으며(Smith, 1992),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이다(Spielberger et al., 1985). 냉소적 적대감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이 있었다(Dembroski, MacDougall, Williams, Haney, & Blumenthal, 1985; Smith, 1992). 타인에게 적대감이 느껴질 경우 사회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그 관계에서 긴장하거나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냉소적 적대감이 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되기도 하였다(Shapiro, Goldstein, & Jamner, 1996).

변보기와 강석기(2002)는 적대감을 기질적인 것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그것이 오랜 기간 반복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태도로 보았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녀의 적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inberg, Howe, Reiss, & Heitherington, 2000).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김재엽, 남석인, 최선아, 2010)에서는 부모가 너무 과하게 처벌하며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적대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등(2010)은 부모가 가혹한 처벌을 하거나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의 분노 성향이 강해진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정윤성, 2007; Gottman & Katz 1989)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재엽, 정윤경, 2007)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적대감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계숙과 이은하(2003)는 어머니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인 아동이 적대적 행동을 보인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중재를 시도하였다.

일찍이 Adler(1964)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여 타인을 믿지 못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몇몇의 학자들(조수환, 2003; Schaefer, 1965)도 부모로부터 거부적 양육을 받은 자녀의 경우 불안을 경험하며 적대적이어서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본 연구자들은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된 자녀들은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냉소적 적대감을 발달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냉소적 적대감을 키우고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을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의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냉소적 적대감과 관계가 있다. 둘째,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냉소적 적대감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다. 넷째, 냉소적 적대감은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사회불안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심리적으로 중재하고자 하는 전문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방 법

## 조사 도구

### 참여자

본 연구는 울산시에 위치한 한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533명(남성 273명, 여성 26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만 15세에서 18세( $M=16.45$ ,  $SD=0.65$ )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들 중에 1학년이 266명(49.9%)이고 2학년이 267명(50.1%)이었으며, 3학년은 진학을 위한 준비로 설문에 응할 수 없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1.16명( $SD=0.55$ )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4.15명( $SD=0.63$ )이었다.

참여자들 중에 120명이 자신의 종교를 불교라고 응답하였으며, 81명(15.2%)이 기독교(개신교), 22명(4.1%)이 천주교, 5명(0.9%)이 기타 종교를 믿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305명(57.2%)의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318명(59.7%), 고등학교 졸업은 205명(38.5%), 중학교 졸업은 9명(1.7%), 초등학교 졸업은 1명(0.2%)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239명(44.8%), 고등학교 졸업은 285명(53.5%), 중학교 졸업은 8명(1.5%), 초등학교 졸업은 1명(0.2%)이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정의 경제수준과 비교할 때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류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은 9명(1.7%), 중류 중의 상은 135명(25.3%), 중류 중의 중은 313명(58.7%), 중류 중의 하는 71명(13.3%)이었고, 하류라고 보고한 경우는 5명(0.9%)이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와 Rohner(1981)의 부모수용거부 질문지(PARQ: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Questionnaire)와 정원식(1998)의 가정환경 진단검사를 바탕으로 권순명(1993)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hner와 Rohner(1981)가 개발한 부모수용거부 질문지의 60문항 중 한국의 문화 환경에 적합한 수용-거부 차원 30문항과 정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의 자율-통제 차원 30문항을 더해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하위척도인 거부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문항에 한 번은 아버지로 한 번은 어머니로 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1--'전혀 다르다', 2--'대체로 다르다', 3--'대체로 그렇다', 4--'거의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아버지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84이고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85였다.

**냉소적 적대감:** 고등학생의 냉소적 적대감을 Cook과 Medley(1954)의 적대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적대감을 측정하는 27문항과 사회적 요망도가 높은 첨가 항목(filler items) 37문항을 포함하여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진위형으로 27문항이 냉소적 적대감, 공격적 적대감, 분노 유발과 같은 세 가지 하위척도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냉소적 적대감을 측정하는

13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냉소적 적대감을 묻는 문항의 예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가 더 존중받기를 바란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Cook-Medley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Pope, Smith, & Rhodewelt, 1990). 본 연구에서 13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9였다.

**대인관계 스트레스:**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김교현과 진경구(1993)가 개발한 청소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중 대인관계 세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으로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있으며, 각 영역에서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들이 문항으로 제시된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그 사건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를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0), 경험했다(1), 자주 경험했다(2)에 응답하도록 했다. 원래 이 척도는 각 1회 이상 경험한 각 사건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0), 중요하다(1), 매우 중요하다(2)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요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가족과의 스트레스(5문항)는 .76, 친구와의 스트레스(7문항)는 .74, 교사와의 스트레스(6문항)는 .87, 그리고 전체 문항은 .84이었다.

**사회불안:** 참여자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1998)의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를 오경자와 양윤란(2003)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등과 같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18개의 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부정적 평가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 두려움(4문항), 일반적 상황 두려움(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부정적 평가 두려움 .92, 새로운 상황 두려움 .84, 일반적 상황 두려움 .82이었고, 전체 척도는 .94였다.

## 조사 및 분석 절차

설문은 학교 관계자들의 허락 하에 담임선생님이 함께 입실한 상태에서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인 고등학생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이 때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음을 알렸다.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에 의해 실행되었고, 이 연구에서의 주요 통계분석은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위계적(hierarchical) 회귀분석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관분석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결 과

###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냉소적 적대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냉소적 적대감과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고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따로 분석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학생( $r=.34, p<.001$ )과 여학생( $r=.29, p<.001$ ) 모두의 냉소적 적대감과 유의한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모두에서 그런 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학생( $r=.55, p<.001$ ) 여학생( $r=.58, p<.001$ )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하위요인, 즉 가족과의 스트레스, 친구와의 스트레스 및 교사와의 스트레스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모두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었다.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남학생( $r=.25, p<.001$ ) 여학생( $r=.34, p<.001$ )의 사회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표 1. 고등학생이 지각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 및 냉소적 적대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상관행렬( $N=533$ )

변인	부 거부적 양육태도	모 거부적 양육태도	부모 거부적 양육태도	냉소적 적대감	<i>M(SD)</i>
냉소적 적대감	.32*** .28***	.30*** .26***	.34*** .29***		
가족과의 스트레스	.57*** .55***	.67*** .56***	.66*** .60***	.38*** .32***	6.92(2.24) 7.50(2.61)
친구와의 스트레스	.23*** .38***	.21*** .40***	.24*** .43***	.27*** .30***	8.85(2.35) 9.35(2.67)
교사와의 스트레스	.33** .22***	.31*** .25***	.34*** .26***	.22*** .20***	7.68(3.28) 7.34(2.40)
대인관계 스트레스	.51*** .52***	.53*** .54***	.55*** .58***	.38*** .37***	23.45(5.71) 24.19(5.75)
부정 평가 두려움	.23*** .31***	.23*** .33***	.25*** .35***	.38*** .43***	16.49(6.51) 18.67(7.39)
새로운 상황 두려움	.18** .26***	.16** .19**	.18** .24***	.23*** .34***	11.30(3.91) 11.44(4.21)
일반적 상황 두려움	.19** .23***	.24*** .23***	.23*** .25***	.32*** .32***	3.48(1.82) 3.61(1.98)
사회불안	.24*** .32***	.24*** .31***	.25*** .34***	.37*** .44***	31.26(10.79) 33.72(11.97)
<i>M(SD)</i>	19.11(5.50) 18.34(5.40)	19.31(5.50) 19.43(5.57)	38.45(10.29) 37.78(10.12)	28.32(5.58) 26.55(5.61)	

\*  $p<.05$ , \*\*  $p<.01$ , \*\*\*  $p<.001$ .

주. 위의 통계값은 남학생( $n=273$ )의 것이고, 아래의 통계값은 여학생( $n=273$ )의 것임.

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 모두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및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사회불안보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냉소적 적대감도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냉소적 적대감은 남학생( $r=.38, p<.001$ ) 여학생( $r=.37, p<.001$ ) 모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었다. 또한 냉소적 적대감은 남학생( $r=.37, p<.001$ ) 여학생( $r=.44, p<.001$ ) 모두의 사회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상관분석에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와 대인관계 스트레스(C<sub>1</sub>)의 관계가 유의하고, 냉소적 적대감(B)과 대인관계 스트레스(C<sub>1</sub>)의 관계도 유의하였다. 그리고 A와 B의 상관도 유의하였기 때문에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A → B가 유의하고 A → C도 유의해야 하며, A와 B를 함께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것(A, B)도 C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예언변인 A에 매개변인 B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 A의 설명력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A와 C의 관계를 B가 매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A, B → C에서의 A의 설명량이 줄어들어도 유의하면 B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이며, 설명량이 줄어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 되면 완전하게 매개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냉소적 적대감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A → C<sub>1</sub>)의 설명량보다 A, B → C<sub>1</sub>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9.3% 줄었고 냉소적 적대감(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beta=-.21, p<.001$ . A, B → C<sub>1</sub>에서의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이 줄어들어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의

표 2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 <sup>2</sup>	ΔR <sup>2</sup>	β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098		.31***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대인관계 스트레스(C <sub>1</sub> )	.315		.56***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대인관계 스트레스(C <sub>1</sub> )	.353	.222	.50***
냉소적 적대감(B)			.038	.21***

\*\*\* $p<.001$ .

관계를 냉소적 적대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 논 의

###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고등 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냉소적 적대감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고등 학생의 사회불안의 관계도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이 사회불안(C<sub>2</sub>)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냉소적 적대감(B)이 사회불안(C<sub>2</sub>)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었으며, A와 B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냉소적 적대감이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하여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A → C<sub>2</sub>)의 설명량보다 A, B → C<sub>2</sub>에서 A의 추가 설명량이 5.2% 줄었고 냉소적 적대감(B)의 추가 설명력도 유의하였다,  $\beta=.32, p<.001$ . A, B → C<sub>2</sub>에서의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이 줄어들었어도 유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불안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였고,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냉소적 적대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으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우선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냉소적 적대감 수준도 높았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장하며 냉소적 적대감 형성할 수 있다는 김제엽 등(201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상관분석 결과로 인과관계를 결론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적대감이 강한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에게 거부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적대감 형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정계숙, 이은하, 2003)과 그것을 지지하는 실증연구들(김제엽, 정운경, 2007; Feinberg et al., 2000; Gottman & Katz, 1989)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거부적 양육태도가 냉소적 적대감과 약 10%가량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추후

표 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에 대한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Delta R^2$	$\beta$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098		.31***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사회불안(C <sub>2</sub> )	.085		.29***
거부적 부모양육태도(A) 냉소적 적대감(B)	사회불안(C <sub>2</sub> )	.177	.033 .092	.19*** .32***

\*\*\* $p<.001$ .

연구에서 이 관계에 주목할 만하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Zannarini와 Frankenburg(1997)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배타적이고 거부적이라고 생각되면 자녀가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는 그런 불안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몇몇의 연구(Parker, 1979; Arrindell et al., 1989)에서도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불안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가 자녀를 사회적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일찍이 Adler도 부모로부터 애정을 못 받고 방임된 자녀, 다시 말해 거부적으로 양육된 자녀가 성장하면 적절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Feist & Feist, 2008).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성장기에 경험하는 자녀의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윤세화, 권연희, 2009)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중에서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의 변량을 8.5%정도 설명하는 것에 반해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31.5%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인 태도로 양육하면 자녀가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에는 회피 성향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학생의 경우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된 고등학생

이 피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이들이 사회적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그런 사회적 상황을 꺼리는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이라 예상된다.

고등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이 이렇게 큰 것은 그런 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력을 떨어뜨리거나(백지은, 2009), 감정조절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정윤성, 2007). 김원자와 서경현(2013)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 받았을 경우 성장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는데, 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경계선 성격 하위요인 중에 정서통제 불가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Adler(1927)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방임되면 자녀가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하였고, 김원자와 서경현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체감 문제와 상관이 있었다.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되면 자녀가 대인관계에서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창석, 조한익, 2011)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고 그 관계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냉소적인 적대감을 가지게 하여 자녀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에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거부적으로 양육된 자녀가 성장하면 타인을 믿지 못해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Adler의 주장(Feist & Feist, 2008)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할 경우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냉소주의가 발달하여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사회적 관계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논리는 냉소적 적대감이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변보기, 강석기, 2002)으로 가정할 때 가능한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하면 주양육자인 부모가 자신들을 거부하는데 누가 자신들을 받아 주고 잘 대해 줄 것인가를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추론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냉소적 적대감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10% 가량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과는 더 많은 변량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지금까지 냉소적 적대감은 분노와 같은 정서 변인(Gottman & Katz 1989)으로 혹은 건강 차원(Spielberger et al., 1985)에서 연구되었지만, 이 연구는 사회 적응적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비해 사회불안에 대한 거부적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냉소적 적대감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컸다. 이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보다 사회불안은 기질적 차원의 냉소주의나 다른 경험에 의해 획득된 냉소적 적대감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접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dler(1927)도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Parker, 1979; Arrindellet et al., 1989)에서는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 부적응이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서만 나타났다. 최근 한국 대학생들을 한 연구(조양선, 손술, 서경현, 2013)에서는 양육태도 차원에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현상이 한국 문화의 특성인지 문화비교적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냉소적 적대감이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논의하였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녀가 경험하는 대인관계 스트레스나 사회불안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로부터 측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로서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했기 때문이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을 다르게 했을 수 있다. 거부적 부모양육태도가 냉소적 적대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과

관계를 가정할 때 그런 문제는 더 두드러진다. 기억에는 기분일치효과(mood congruence effect)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Bower, 1981). 적대감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그 감정과 더 일치되게 기억하게 만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해석의 한계가 있더라도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불안에 대한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냉소적 적대감의 영향은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권순명 (1993). 지각된 양육 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통제 귀인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진점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적도의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2), 197-217.
- 김원자, 서경현 (201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517-533.
- 김재엽, 남석인, 최선아 (2010). 아동기 부모 훈육 방식이 청소년의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 자녀 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15(3), 121-147.
- 김재엽, 정윤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29-43.
- 박경 (2003). 부정적인 생활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 581-593.
- 백지은 (2009).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이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11-127.
- 변보기, 강석기 (200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적대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69-291.
- 서경현 (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 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 207-226.
- 서경현, 양승애 (2010). 여대생의 자기애와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심리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연구, 18(4), 1-8.
- 서경현, 유제민, 안경미 (2008). 초등학생 사회불안의 예측 모형: 행동억제,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 675-693.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557-576.
- 윤세화, 권연희 (2009).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및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253-271.
- 정계숙, 이은하 (2003).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태도로 인한 반항적적대적 행동문제 유아의 놀이치료 사례연구. 아동교육논총, 12, 51-78.
- 정윤성 (200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수용-거부양육태도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15(1), 91-103.
- 정원식 (1998).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코리아안테스팅센터
- 조수환 (2003). 건전한 삶을 위한 정신위생. 서울: 동문사.
- 조양선, 손솔, 서경현 (201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모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03-217.
- 최창석, 조한익 (2011). 청소년의 수치심경향성, 죄책감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동기,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4), 29-48.
- 허재홍 (2006). 부모양육태도, 완벽주의, 외상경험이 사



- 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 593-611.
- 허재홍, 조용래 (2005). 자기불일치와 사회불안이 대학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5(2), 85-100.
- Adler, A. (1927). *Understanding Human Nature*. NY: Greenburg Pub., Inc., Translation of lectures by Adler in Vienna in 1926.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Eds.). New York: Harper Torchbooks.
- Adler, A. (1964).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A Collection of Later Writings*. H. L. Ansbacher and R. R. Ansbacher (Eds.).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rindell, W. A., Kwee, M. G. T., Methorst, G. J., Van Der Ende, J., Pole, E., & Moritz, B. J. M. (1989). Perceived parental rearing style of agoraphobic and socially phobic inpatient.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5, 526-535.
- Baron, R. M.,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2), 129-148.
- Bruch, M. A., & Heimberg, R. G. (199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between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phobic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155-168.
- Bruch, M. A., Heimberg, R. 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3.
- Cook, W. & Medley, D. (1954). Proposed hostility and pharisaic-virtue scales for the MMPI.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8, 414-418.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729-746.
- Dembroski, T. M., MacDougall, J. M., Williams, R. B., Haney, T. L., & Blumenthal, J. A., (1985). Components of Type A, hostility and anger-in: Relationship to angiographic findings. *Psychosomatic Medicine*, 47, 219-233.
- Feinberg, M. E., Howe, G. W., Reiss, D., & Heithington, E. M. (2000).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difference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4(4), 531-555.
- Feist, J., & Feist G. J. (2008). *Theories of Personality (7ed.)*. NY: The McGraw-Hill Companies, Inc.
- Gottman, J. M., &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10), 373-381.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Joiner, T. E., Jr., & Metalsky, G. I. (1995). A prospective test of an integrative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 778-788.29.
-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La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Last, C. G.,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H., & Perrin, S. (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928-934.
- Lynch, J. (1979). *The Broken Heart: The Medical Consequences of Loneliness*. New York, NY: Basic Book.
- Merikangas, A. S., Dierker, L., & Grillon C. (1999). Vulnerability factors among children at risk for anxiety disorders. *Biological Psychiatry*, 46(11), 1523-1535.
-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ope, M. K., Smith, T. W., & Rhodewalt, F. (1990). Cognitive, behavioral, and affective correlates of the Cook and Medley HO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501 - 514.
- Powell, B. (1987). *Good Relationships Are Good Medicine*. Emmaus, PA: Rodale Press.
- Rohner, R. P., & Rohner, E. C. (1981).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Cross-cultural coder. *Ethnology*, 20, 245-260.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hapiro, D., Goldstein, I. B., & Jamner, L. D. (1996). Effects of cynical hostility, anger out, anxiety, and defensiveness on ambulatory blood pressure in Black and white college students. *Psychosomatic medicine*, 58, 354-364.
- Smith, T. W. (1992). Hostility and health. Current status of a psychosomatic hypothesis. *Health Psychology*, 11(3), 139-150.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In M. A. Cheseny & R. G.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New York: Hemisphere.
- Stein, M. B., & Stein, D. J. (2008). Social anxiety disorder. *The Lancet*, 371, 1115.
- Zanarini, M. C., & Frankenburg, F. R. (1997). Pathways to the develop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1(1), 93-104.
- Zanarini, M. C., Weingeroff, J. L., & Frankenburg, F. R. (2009). Defense mechanism associated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3(2), 113-121.

원고접수일: 2013년 10월 13일

논문심사일: 2013년 11월 1일

게재결정일: 2013년 11월 1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3. Vol. 18, No. 4, 837 - 851

---

#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Stresses/Social Anxiety: Focus on Mediating Effects of Cynical Hostility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Hyun-Jin Sin Seung-Ae Y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cynical hostility and interpersonal stresses/social anxiet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cynical host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stresses/social anxiety. The participants were 533 (273 males and 260 females) high school students, with an average age of 16.45 (SD=0.65). Perceived rejective rearing attitude of the parents, cynical hostility, and the level of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were measur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perceived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ynical host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It was also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stress as well as social anxiety, the relations was showed in rejective rearing attitudes of both father and mother.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sub-factors of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Also, cynical host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stresses and social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cynical hostility was partially mediating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interpersonal stresses as well as social anxiety. The influences of parents' rejective rearing attitude and the roles of cynical hostility in interpersonal stress and social anxiety were discussed with the theory of individual psychology and previous studies, and the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and clinical meaning of this study were recommended.

*Keywords:* rearing attitude, cynicism, hostility, interpersonal personality, social anxiety